

한국의 전략 산업 구축 방향

류재현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략 산업으로의 재편이 시급해진 산업 구조

21세기를 4년 앞두고 우리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내외 산업 환경은 90년대 들어 날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산업 구조는 기존의 발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경기 침체에 들어서자 새로운 산업 구조의 재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순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는 데도 소비자 물가가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4.5%를 넘어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수 위축기에 접어든 올해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이나 세계 경제가 호황 기임에도 우리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은 흔히 경기 하강기에 나타나는 경상수지 호전, 물가 안정, 수출 확대 경향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임에 틀림 없다. 이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우리 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기존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서도 검증된다. 즉,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산업은 이미 피로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75년, 1985년, 1995년의 10년 간격으로 산업별 기업 경영 성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 평균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윤이 커지고 있는 업종이 10년마다 2개 업종씩 줄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외형도 커지고 이윤도 높은 사업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매출 증가 업종은 비슷한데 이윤 증가 업종은 줄고 있다. 즉, 고매출형 업종은 1975년에 11개 업종, 1985년에 12개 업종, 1995년 11개 업종으로 여전 하나, 하이이윤형 업종은 1975년과 1985년에 각각 11개, 10개 업종에서 1995년에 4개 업종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결국, 특정 업종에 이윤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대부분 업종의 기업 경영 성과는 그다지 좋아

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산업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에 가중된 충격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번 경기 하강기는 순환적인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기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경기 하강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단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21세기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 1〉 疲勞度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산업

	高이윤·高매출형	高이윤·低매출형	低이윤·高매출형	低이윤·低매출형
1975	정밀 기계, 인쇄, 고무·플라스틱,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전기 기계, 영상·음향 (7 개 업종)	비철 금속, 자동차, 조선, 화학물, 종이 (5 개 업종)	석유 정제, 신발, 목재, 음식료, 의류 (5 개 업종)	섬유, 1차 금속 (2 개 업종)
1985	전기 기계, 기계 장비, 고무·플라스틱, 화학물 (4 개 업종)	종이, 인쇄, 조선, 자동차, 조립 금속, 1차 금속 (6 개 업종)	석유 정제, 영상·음향, 정밀 기계, 신발, 기계 장비, 의류, 음식료, 목재(8 개 업종)	섬유 (1 개 업종)
1995	영상·음향, 화학물 (2 개 업종)	종이, 1차 금속 (2 개 업종)	신발, 의류, 목재, 전기 기계, 1차 금속, 석유 정제, 기계 장비, 정밀 기계, 자동차(9 개 업종)	섬유, 고무·플라스틱, 인쇄, 비철 금속, 조선, 조립 금속 (6 개 업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76, 1986, 1996.

- 주: 1) 고이윤 고매출형: 매출액 영업 이익률(%)=(영업 이익/매출액 × 100)과 총자본 회전율(회)=(매출액/총자본) 모두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한 업종.
 2) 고이윤·저매출형: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나 총자본 회전율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
 3) 저이윤·고매출형: 총자본 회전율은 제조업 평균을 웃도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
 4) 저이윤·저매출형: 매출액 영업 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 모두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
 5) 제조업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 및 총자본 회전율은 1975년에 각각 7.34%, 1.14%, 1985년에 각각 7.81%, 1.20%, 1995년에 각각 8.33%, 1.00%임.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산업 구조가 과연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지도 논란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산업 지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경제와 아시아 경제라는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정보 통신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꾀하고 있는 반면, 세계 최대 성장 지역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경제는 선진국의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 분업 기지로서의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선진 제국과 아시아 제국들은 '시장'과 '산업간 국제 분업'이라는 매개로 세계 경제의 틀을 새롭게 형성시켜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산업은 글로벌한 차원의 산업 구조 재편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외 투자는 작년엔 200억 달러까지 늘었으나, 일본의 1.7%, 대만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GDP 기준으로 이들 국가보다 훨씬 작은 0.67%에 그치고 있다. 이것조차도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우려로 규제 여부가 논란 거리된 바 있다. 아직도 글로벌화라는 개념이 전략의 세계화나 현지화보다는 수출선 다변화의 강화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경영 환경이 변화해서 더이상 기존 사업으로는 경영 성과가 불투명해질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사업 재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산업 구조도 국내외적인 산업 환경 변화에 의해 기존 사업 구조가 유효성을 잃고 있을 때, 전략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산업 구조는 바로 이런 시점에 도달해 있다. 여기서 전략 산업이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산업 진출 비전으로서 정태적인 요소인 부존 자원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요소인 투자 자원을 집중하여 선진 산업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전략 산업의 조건

한국의 산업 구조는 대내적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을 꾀해야만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산업 구조를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전략 산업이 지녀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표 2〉 동기별 설비 투자의 한일간 비교(1995)

	설비 능력 증가	합리화	연구 개발	공해 방지 및 기타
한국	61.5	18.8	6.0	13.7
일본	31.3	34.9	9.9	22.5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 투자 계획 조사」, 1996.

우선, 전략 산업은 강력한 경기 대응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호황기에 익숙해져 있으나, 불황기 때에는 매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합리화나 연구 개발 투자가 아니라 설비 확대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 1995년도 동기별 설비 투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61.5%가 설비 능력 증가를 목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합리화 및 연구 개발 투자는 2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31.3%만이 설비 능력 증가 투자이고, 45%가 합리화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해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비 투자는 경기 하강기의 신제품 개발과 합리화보다는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 구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일본에 비해 질적 경쟁력을 위한 설비 투자보다는 양적 확대 투자를 위한 설비 투자에 더욱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수출 구조가 다양한 품목으로 분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소수 품목에 수출이 의존되어 있는 것은 더욱더 문제이다. <표 3>에서처럼 수많은 제품군으로 구성되는 일반 기계를 제외하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등 5대 수출 품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5대 제품의 수출 집중도가 1980년의 20.5%에서 1995년도의 40.7%로 거의 2 배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1980년의 38.6%에서 1995년 29.8%로 오히려 그 비중이 줄었다. 소수 품목에의 수출 집중화는 최근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소재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국제 시장에서 갑작스런 교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 나라의 거시 경제에 큰 부작용을 파급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가진 전략 수출 제품의 발굴이 시급하다.

<표 3> 한일간 수출 품목 비중 비교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5대 품목계	일반 기계
1995	한국	17.7	5.8	4.6	5.9	6.7	40.7	4.5
	일본	5.9	4.0	6.8	1.1	12.0	29.8	24.2
1980	한국	2.1	9.3	3.0	5.6	0.5	20.5	1.3
	일본	0.7	11.9	5.2	2.9	17.9	38.6	13.9

자료: KIET, 「실물경제」, 1996. 8.14.

〈표 4〉 주요 소재·부품의 수출 단가 및 물량 변동 추이

		한국				일본			
		1993	1994	1995	1996. 1~6	1993	1994	1995	1996. 1~5
반도체	단가	6.8	13.0	3.0	-37.0	3.1	17.2	18.4	1.8
	물량	3.5	33.5	61.1	90.1	22.0	13.7	17.5	3.4
유기 화학	단가	6.7	12.7	19.2	-20.1	7.9	12.1	23.4	-2.0
	물량	15.2	13.9	19.3	21.7	-6.0	5.7	11.8	-1.2
철강	단가	0.3	-1.9	11.3	-3.7	-5.8	2.0	14.8	6.7
	물량	14.1	-1.8	15.4	-28.3	15.4	0.6	2.4	-11.0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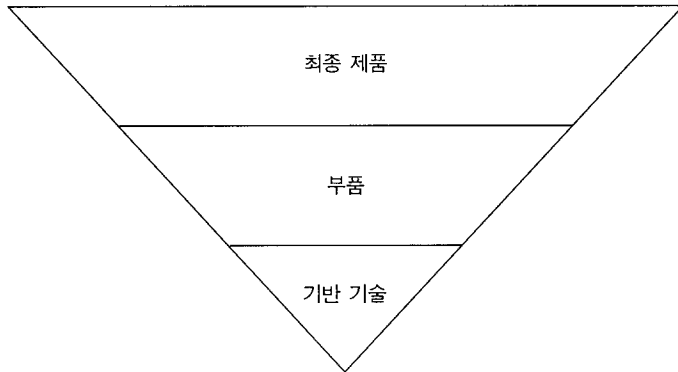
日本關稅協會, 「外國貿易概況」, 1996.

셋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을 가져야 한다. 반도체, 유기 화학, 철강은 일본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이 세 품목의 세계 수급 상황이 공급 과잉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반도체의 경우는 매우 큰 폭의 가격 하락과 주력 제품의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같은 국제 시장의 교란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단가 면에서 더 큰 증감폭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가격 변화에 대한 물량 조정 능력 면에서도 일본에 비해 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 축소 조정이 매우 낮다.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긴 해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산업 구조는 세계 시장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보다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범용 소재의 생산 설비 투자가 늘면서 세계적인 가격 불안이 초래되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제품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치 제품의 생산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 기반형 산업인 자본재 산업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산업 구조는 기반 기술과 부품 산업 발전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림 1〉과 같이, 우리 산업 구조는 기반 산업이 최종 제품보다 매우 왜소해진 상태로 성장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1) 野村總合研究所, “復活する日本企業の國際競爭力”, 「財界觀測」, 1996. 5.1.

〈그림 1〉 우리나라 역삼각형 산업 발전 구조



이런 구조 하에서 최종재의 수출 산업화는 불가피하게도 부품 및 소재의 해외 의존도, 특히 대일의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90년대 이후의 자본재의 대일 무역 적자는 전체 대일 적자보다 줄곧 10~30억 달러를 초과했다.

반면, 일본은 90년대에 들어 내수 위축과 엔고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던 사실은 정확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반대이다. 〈표 3〉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품목과 달리 일본의 수출에서 일반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13.9%에서 24.2%로 큰 폭으로 커졌다. 이는 일반 기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가 매우 공고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반 기계는 대표적인 자본재 산업으로 기반 기술과 부품 경쟁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투자와 노하우 축적이 요구된 산업이다. 노무라연구소는 최근 ‘부활하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²⁾에서 자본재 산업은 환율 및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공작기계 수출은 1995년 중에 1달러에 80엔대로까지 엔고가 진행되어도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신장세를 보였다.

전략 산업 구축 방향

현재 우리 산업 구조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는 기존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면서 글로벌한 대응력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특히, 전략 산업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2) 伊丹敬之, “日本産業の第3波”, 『日本經濟新聞』, 1996. 1~2.

점을 고려해서 기존 산업 구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전략 산업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절형 전략 산업이다. 이런 산업에는 기존 산업과 시장 구조나 기술적 특성이 비교적 다른 첨단 기술 산업이 속한다. 이런 전략 산업의 성공을 위한 글로벌 전략 포인트는 선진국과는 기술과 시장, 개도국과는 시장과 부품 생산 분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 산업의 가장 큰 맹점은 산업 고도화를 조기에 달성시키는 데 가장 유력한 대안 산업 분야이긴 하나, 위험도 그만큼 큰 산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의 등장과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표준 규격 전쟁에 대한 충분한 전략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행 착오와 높은 실패 가능성을 견뎌낼 수 있는 재정 능력과 파격적인 조직 문화가 요구된다. 최근 벤처 기업, 사내 기업, 가상 기업의 등장은 단절적 전략 산업에 어울리는 조직 문화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융합형 전략 산업이다. 이런 유형은 기존의 성숙 산업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진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자동차 + 신에너지), 카네비게이션시스템(자동차 + 정보 통신 기술) 등이 그러하다. 단절적 전략 산업에서 기술과 제품이 성숙화되는 과정에서 이 신기술들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산업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기술의 도입 및 응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반형 전략 산업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중요시되어야 할 산업이다. 그 이유는 이런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영위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 조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산업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이긴 하나, 품질 수준이 점차 표준화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동아시아 제국과 분업 관계를 통해서 향후에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고기능 재료 및 부품으로, 그리고 기계류는 고도 산업 기계 및 시스템 사업으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 분업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 업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조속히 따라잡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적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전략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가격 경쟁력 우위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형 전략 산업이다. 80, 90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이다. 유형 제품에서 가치를 얻는 시대는 20세기 굴뚝산업시대의 유물이다. 패션,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통과 개성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재생되고 있다. 화폐 금액으로 따졌을 때, 1995년을 전후로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이 하드웨어 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 지적소유권의 강화는 문화형 전략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무형 가치의 창조를 위한 조직 문화와 개인의 창의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리**

〈그림 2〉 전략 산업으로의 재구축

